

朝鮮朝 經筵에서 光海君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Gwanghaegun'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讀書行態 |
| 2. 世子時節讀書 |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
| 3. 經筵制度 및 讀書行態 | 5. 結言 |
| 3.1 經筵制度 | |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5대 왕 光海君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16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광해군은 28세에 세자에 책봉되고 34세에 왕위에 올라 경연제도를 재정비했으나 세자 때부터 독서환경이 되지 못해서 왕이 되어서도 독서를 등한시한 왕이었다. 당시 그가 읽었던 책을 보면 세자시절에 『孟子』, 왕권을 잡은 뒤에는 『書經』, 『大學衍義』가 독서자료로 선정되었으나 이 책들도 모두 완독하지 못하였다. 독서회수는 총 41회로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홍문관에 근무하는 경연관 역시 경연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근무태도도 정도를 벗어날 정도였다. 광해군 자신도 국내문제,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독서를 회피하였다. 결과적으로 광해군의 독서력은 부왕인 선조(재위 41년간 총 483)와 같이 저조한 독서율을 나타냈다.

要語: 經筵, 光海君, 『大學衍義』, 『孟子』, 『書經』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6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wanghaegun'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16years were 2 titles, that is, *Seogyeong* (書經) and *Daehagyeonui*(大學衍義).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reading discussion were 41.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moreover from 1608 to 1623, when he was in power,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Gwanghaegun's desire to reading was much lower than the late king's reading career.

Key words: Gyeongyeon(經筵), Gwanghaegun(光海君), *Seogyeong*(書經), *Daehagyeonui*(大學衍義)

1. 緒 言

광해군 이름은 璵으로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선조 8년(1575)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후사가 급한 선조는 장자 임해군(1574-1609)이 성격이 포약하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장자인 임해군이 있는 관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선조가 1602년 인목황후(1584-1632)와 결혼한 뒤 1606년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이 서자라는 이유로 반대파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선조가 1608년 세상을 떠나자 그 해 2월에 인목대비의 언문교지를 받고 등극하였다. 등극한 후 광해군은 대북파와 소북파의 정쟁으로 인해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형인 임해군을 유배시켜 죽였으며, 1612년 김직제의 옥으로 소북파 100여명이 숙청되고, 1613년에는 ‘칠서의 옥’이 발생하여 인목대비 부친 김계남(1562-1613)이 사사되었으며, 영창대군(1606-1614)을 강화도에 유배 보낸 뒤 이듬해에 사사하였으며, 인목대비도 서궁에 유폐시킨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복합으로 인해 1623년 金瑬(1571-1648), 李貴(1557-1633), 沈器遠(?-1623), 李适(1587-1624), 金自點(1588-1651) 등이 綾陽君을 앞세우고 창덕궁으로 들어와 반정에 성공하여 광해군은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에 유배되어 살다가 1641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당시 1608년 창덕궁 준공, 선혜청설치, 대동법실시, 1616년 담배수입, 1619년 경덕궁, 1621년 인경궁을 증진하였으며, 책으로는 『홍길동전』, 『동의보감』(1613) 등을 출판한 치적도 있다.

결국 비운의 사나이로 살다간 광해군 역시 왕권을 행사하면서부터 경연을 열어 독서하고 문신들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경연이란 역대 왕들이 집권 후에 반드시 해야 할 독서의 자리였으며, 이는 경연에서 경연관들과 함께해야 했다. 경연에서 독서를 통해서 읽은 내용은 우선적으로 경연관들과 토론하고, 그 후 참찬관들과 정사를 논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소통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어 왔으며, 국가 운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독서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경연에 성실하게 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宣祖實錄』과 『光海君日記』(정초본) 등을 참고로 그의 세자시절 독서활동을 밝히고, 왕위에 등극한 뒤 16년 동안 왕권을 행사하면서 경연에서의 독서 행태 및 읽었던 책에 대해 조사하여 광해군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世子時節讀書

선조 8년(1575)에 태어난 광해군은 성장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임해군과 사부를 모시고 독서를 시작하였다.¹⁾ 그의 나이 8세에 河洛이 사부가 되어 독서를 지도하였다. 당시 임해군은 역사책을 읽었으며, 광해군은 『小學』을 읽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부의 상소에서 볼 수 있다.²⁾ 부왕인 선조 역시 당시에는 독서에 흥미가 없었다. 선조의 독서력에서 밝힌 바와 같이³⁾ 광해군이 태어난 시기에 선조는 『書經』을 읽기 시작하여 5년 후 완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광해군이 독서에 관심을 보여야 할 시기는 세자책봉 당시인 선조 25년(1592)이었다. 즉, 그의 나이 28세 때인 선조 25년 4월 29일 세자로 책봉되면서 시강원에서 서연을 준비하면서 부터이다. 그 해 5월 9일 서연을 열기위해 시강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칙적으로는 師傅, 貳師, 賓客은 상견례를 행한 뒤에 서연에서 회강하는 것인데, 난리 중이라 의물과 관복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견례를 생략해야 한다는 점. 둘째, 상견례를 치루지 못하므로 궁에 있는 관료들에게 주강과 석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결국 난리 중이라는 이유로 스승을 모시지

1) 光海君 세자책봉 전인 대군시절의 사부는 河洛, 朴光前, 閔應祺, 鄭雲龍, 權宇 등이었다. 광해군이 즉위 후 이미 사망한 사부들의 집에 설날 사용할 제물과 은전을 주기도 하였으며, 광해군 9년에는 河洛과 朴光前의 손자에게 까지 직책을 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하였다.

2) 『朝鮮王朝實錄』 宣祖 16年 8月 5日(甲寅) 卷17. 冊21. 169.

3)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宣祖의 讀書歷 考察”,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9), 143.

4) 『朝鮮王朝實錄』 宣祖 25年 5月 9日(戊辰) 卷26. 冊21. 488.

못하고 宮僚들과 독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임진왜란은 그 해 4월 13일에 일어나 계속적인 일본군의 공세로 불안한 시기였으므로 차분하게 독서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세자로 책봉된 다음날인 4월 30일 피난길에 올랐으니 책도 소유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이르자 27년(1594) 7월에 대사헌 金宇顥(1540-1603) 등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므로 서연에서 독서할 때 규범에 얽매이기 때문에 독서하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앞으로는 사부와 빈료를 만나는데 예모를 번거롭게 하거나 날짜와 시간에 한정을 두지 말고 사부와 빈객을 자주 만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소통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⁵⁾ 그 후 27년(1594) 10월 25일에 시강원에서 서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웠다.

“근래 書筵에서 勸講하는 일이 매우 적고 輔養과 啓導하는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난리를 겪은 뒤 모든 규칙 등에 관한 일을 상고해 볼 만한 책이 남아있지 않아서 과거에 侍講을 담당했던 사람을 찾아 물어보니 ‘초하루와 보름에는 師傅 이하가 모두 들어가서 師가 進講하는데 이것을 書筵會講이라 하고, 보통 때에는 賓客 1員과 上下番이 入侍하여 빈객이 진강하는데 이것을 朝書筵이라 하며, 빈객이 만약 일이 있어 입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하번 관원이 입시하여 진강하는데 이것을 接見이라 하는데 일정한 때가 없다. 講이 과한 뒤에는 下番이 그날 강론했던 말들을 기록하여 入啓하면 上께서 보신 후 다시 東宮으로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하겠으나 기록하여 입계하는 일은 會講과 朝書筵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하여 규칙을 약간 변경하였다.⁶⁾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 왕실도서관 및 성균관 등에 소장된 모든 법전이나 책들이 소실되었으므로 서연의 규정에 대해 참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과거에 書筵을 담당했던 사람을 물색하여 그 규정에 대해 문의한 끝에 절차를 밝히며 서연에서의 독서를 시작하려 한 것이다.

書筵은 원칙적으로 朝講, 晝講, 夕講과 15일 만에 실시하는 會講이 있었으나 朝講과 會講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서연에 참여할 때 세자가 입어야 할 의관

5) 『朝鮮王朝實錄』 宣祖 27年 7月 9日(乙酉) 卷53. 冊22. 309.

6) 『朝鮮王朝實錄』 宣祖 27年 10月 25日(己巳) 卷56. 冊22. 385.

절차도 모두 잊고 있었다. 서로 異見을 제시하다가 서연용 의복을 翼善冠에 붉은 袞龍袍로 결정하였다.⁷⁾ 선조 30년(1597) 1월 27일 이후부터 시강원에서는 과거 세자의 독서에 대간(사헌부 臺官, 사간원 諫官)이 참여하는 것을 폐지했던 규정을 다시 부활하고 참여 숫자도 제한하지 않았다.⁸⁾

이는 겉으로는 서연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세자의 독서를 도와주는 역할이라 하지만 내면으로는 세자가 서연에서의 독서를 신중히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의도라든지 시강원 사부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광해군은 이러한 제도 하에 선조35년(1602) 9월 12일 『孟子』를 읽었는데, 당시 참여한 서연관은 右副賓客 奇自獻, 弼善 文勵, 司書 李民戡 등이었다. 내용은 광해군과 이민성의 토론내용 중에

- 광해군: 戴不勝은 보통 大夫의 類가 아니고 필시 국정을 맡은 사람인 듯한데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많은 어진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 이민성: 대불승은 薛居州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孟子를 알아보지 못하여 孟子를 왕에게 추천해서 국정을 맡기게 하지 못했으니, 그 사람됨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宋나라가 위급해졌는데도 구제하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⁹⁾

위의 내용은 광해군이 『孟子』 <滕文公> 장구하 6장의 내용을 읽고 토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까지 읽었던 부분은 梁惠王, 公孫丑, 滕文公 상편이었으며, 앞으로 일어아할 부분은 離婁, 萬章, 告子, 盡心章이 남았다. 그러나 그 후 광해군이 『孟子』를 완독했다는 근거가 없다.

7) 『朝鮮王朝實錄』 宣祖 27年 12月 25日(戊辰) 卷58. 冊22. 413. ; 宣祖 29年 4月 10日(丙午) 卷74. 冊 22. 679. ; 宣祖 29年 4月 16日(壬子) 卷74. 冊22. 687.

8) 『朝鮮王朝實錄』 宣祖 30年 1月 27日(戊午) 卷84. 冊23. 157.

9) 『朝鮮王朝實錄』 宣祖 35年 9月 12日(辛未) 卷154. 冊24. 408.

3. 經筵制度 및 讀書行態

3.1 經筵制度

경연제도는 왕의 나이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보편적으로 매일 경연에서 독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일에 한 번씩 경연관과 참차관 등이 모두 모여 회강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일 하는 경연은 어린나이에 등극하였을 경우 조강, 주강, 석강, 야대 등으로 구분하여 독서 및 독서토론을 실시하였으나 광해군은 성인이 되어 등극한 왕이므로 3강과 야대를 원칙으로 했으나 주로 조강과 야대, 그리고 회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광해군은 1608년 2월 34세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왕권을 재정비하고 6월에 경연청을 마련하였다. 경연청은 초기에는 시강원에 설치하고, 시강원은 비변사로 옮기게 하여 경연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卒哭(칠우제) 뒤에 경연을 열어 독서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¹⁰⁾ 얼마 후 경연장소를 시사청으로 하였으며, 중반에 와서는 문정전으로 삼았다.

경연에 참여할 경연관은 초기에는 金信元, 李廷龜, 趙挺, 崔有源, 趙正立, 尹詵 등이 임명되었으며, 경연제도도 우승지 柳公亮에 의해 마련되었다. 당시의 경연 제도를 보면, 경연은 조강·주강·석강의 3강으로 정하여 儒臣이 진강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시간은 조강은 원래 묘시(5-7)였는데 辰時로 늦추고, 주강은 午時, 석강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참여 관직과 인원은 조강에 영사·지사 각 1명, 홍문관 상·하번과 승지·주서 각 1명, 사관 2명, 특진관 2명, 양사 각 1명이 참여하고, 주강·석강에는 홍문관 상·하번과 승지·주서 각 1명, 사관 2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경연에서의 진행은 홍문관에서 담당하고, 조강·주강·초월일 경우 왕이 먼저 앞서 수업한 것을 읊 한 번만 읽고 뜻은 새기지 않고서 끝낸 다음, 진강관이 새로 수업할 것을 읊 한 번과 새김 한 번을 읽고, 왕은 새로 수업하는 것을 읽어 읊과 새김을 각각 한 번씩 하되 새김은 대문에 그치고 뜻을 강론하며, 夕講·夜對에는 왕이 앞서 수업한 것을 읊은 읽지 않고, 진강관이 새로

10)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卽位年 6月 9日(甲子) 卷5. 冊31. 317.

수업한 것의 음과 새김을 각각 한 번 읽은 다음, 왕이 새로 수업한 것의 음과 새김을 각각 한 번 읽어 끝내고 뜻을 강론하는 것으로 하였다.¹¹⁾ (<表 1> 참조)

<表 1> 光海君의 經筵制度

經筵	時間	參與人員	王之讀書方法	經筵官의 進講
朝講	해뜰무렵(平明) 辰時	경연의 영사·지사 각 1원, 홍문관 상·하변과 승지·주서 각 1원, 사관 2원, 특진관 2원, 양사 각 1원	* 조강, 주강, 소대 1. 복습(음독만 1회) 2. 진도(음독, 해석 각 1회, 단 대문만, 강론)	音讀, 解釋 각 1회
晝講, 夕講	晝講: 正午 夕講: 일정하지 않음	홍문관 상·하변과 승지·주서 각 1원, 사관 2원이 입참	* 석강, 야대 왕은 앞서 수업한 내용을 읽지 않음. 그 날 진도나간 것만 음독한 뒤 해석 1회만 함	音讀과 解釋 각 1회

그러나 제도는 자유로운 독서조건을 제시하면서 전 왕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되었으나 경연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말았다.

3.2 讀書行態

위와 같은 경연제도를 마련한 광해군은 집권 16년 동안 어느 정도 독서활동을 했는지 연도별로 그의 독서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해군은 경연을 실시하기위해 즉위년(1608) 7월 7일에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신들에게 관작을 하사하였다. 즉, 金信元을 호조 판서 겸 지경연사 세자 좌빈객으로, 李廷龜를 병조 판서 겸 지춘추관사 동지경연사 성균관사 세자 우빈객으로, 趙挺을 이조 참판 겸 동지경연사로, 崔有源을 부제학으로, 趙正立을 응교로, 윤인을 정언으로 삼았다. 문신들에게 관작만 내리고 실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경연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줄곡이 끝나면 경연에 나와 독서하겠

11)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4月 6日(癸巳) 卷15. 冊31. 411.

다 했는데 광해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을 어긴 광해군에게 홍문관 부교리 李堉이 즉위년 11월 6일 졸곡이 끝났으니 경연에 참여하여 글을 읽고 강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즉, 건강도 좋지 않고 날씨가 추우므로 매일 독서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날을 선정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강론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건의에 대한 광해군의 답은 “오랜 병으로 침울해 있던 중 藥石과 같은 말을 모두 읽고 내 가상히 여겨 탄식하였다. 마땅히 마음에 새겨두겠다.”라고는 즉위년에 한 번도 경연에서 독서를 실천하지 못했다.¹²⁾

광해군 1년(1609)이 되어 승정원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책을 읽고 문신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기력이 없어 독서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1년 동안 계속해서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병을 구실로 삼아 1년이 넘도록 정사 및 독서에 멀리했다는 비평도 받았다.¹³⁾

광해군 1년 2월 3일에 다시 정언 金致遠과 지평 韓纘男이 경연을 열어 독서하자는 건의를 하였으나 제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고 봄 날씨가 쌀쌀하니 날씨를 봐가며 하겠다는 반응이었다.¹⁴⁾ 동년 2월 16일에도 승정원에서 다시 경연을 열어 독서하기를 청하자 날씨도 아직 춥고 경연을 열면 기력이 떨어지니 일단 기다리라는 반응이었다.¹⁵⁾ 늦은 봄이 되자 광해군은 경연을 열어 처음으로 독서할 의사를 표현하였다. 1년 4월 6일에 조강만 실시하는데 왕은 음독과 해석을 몇 차례씩 해야 하는지, 경연관은 진강을 몇 차례해야 하는지를 홍문관에 질문하였다. 이는 경연제도를 바로 세워 그 규칙에 따라 독서할 의향으로 보였다. 그러나 광해군 1년 7월은 더워서 못하고, 8월은 더위가 끝나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므로 경연을 열자하였으나 신병의 구실로 실시되지 못했다.¹⁶⁾ 1년이 넘도록 경연을 한 번도 열지 않자 당시 사신은 “상이 즉위한 이후 한 번도 경연을 열지 않아 아랫사람의

12)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卽位年 11月 6日(甲子) 卷10. 冊31. 365.

13)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1月 10日(癸巳) 卷12. 冊31. 387.

1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2月 3日(乙卯) 卷13. 冊31. 392.

15)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2月 16日(戊辰) 卷13. 冊31. 397.

16)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7月 24日(癸卯) 卷18. 冊31. 443 ; 1年 8月 10日(戊午) 卷19. 冊31. 446.

실정이 막혀 전달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기를 싫어하여 직언하는 사람을 내쳤다. 궁궐이 엄숙하지 않고 외척이 정치에 간섭하며, 등용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간사한 자가 뜻을 얻었다.”는 등 신랄한 비평을 하였다.¹⁷⁾ 다시 광해군 1년 9월 5일 승정원에서 경연을 열어 독서할 것을 권했으나 광해군은 근래 國忌가 있으니 10일부터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¹⁸⁾ 9월 10일이 돼서 다시 건의하자 영모전의 親祭가 있으므로 제사 뒤에 하겠다고 하였다. 일주일 뒤 9월 16일에 재차 건의하자 광해군은 마지못해 경연을 준비하도록 했으나 경연은 열리지 않았다. 동년 11월 19일에 대사헌 鄭賜湖, 집의 이정험, 장령 李忠養, 金止男 등이 또 다시 건의하였으나 깊이 생각한 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¹⁹⁾ 동년 11월 29일 승정원에서 국기일이 끝났으니 경연을 실시하자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²⁰⁾

결국 광해군 1년에는 한 번도 경연을 실시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가 한 해 동안 경연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종합해보면, 첫째,卒뜻이 지나지 않아서, 둘째, 건강이 좋지 못해서, 셋째, 날씨가 추워서, 넷째, 날씨가 더워서, 다섯째, 제사 때문에 등이었다.

광해군 2년(1610)에는 경연제도에 관심을 두고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과 경연 시간 등을 정하기도 했다. 2월 3일에 승정원에서 지난해 건강이 회복되면 경연을 실시한다는 약속도 있었고 날씨도 따뜻해 졌으니 경연을 열어 독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겠다는 답변 이었다.²¹⁾ 며칠 후 다시 홍문관에서 건의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 하였으며,²²⁾ 계속해서 경연소식이 없자 2월 25일 승정원에서 또 다시 건의하였으나 감기가 들어 조리한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였다.²³⁾ 보다 못해 사간원에서는 3월 10일

17)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8月 25日(癸酉) 卷19. 冊31. 449.

18)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9月 5日(癸未) 卷20. 冊31. 452.

19)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11月 19日(丙申) 卷22. 冊31. 469.

20)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1年 11月 29日(丙午) 卷22. 冊31. 471.

21)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2月 3日(己酉) 卷25. 冊31. 489.

22)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2月 7日(癸丑) 卷25. 冊31. 492.

23)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2月 25日(辛未) 卷25. 冊31. 499.

경연을 열어 독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대신들이라도 만나서 국사를 논하자 하였다. 3월 16일에 드디어 광해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경연을 열겠다고 홍문관의 결원을 직제학 이하 모두 보충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으며,²⁴⁾ 3월 24일에는 경연을 열 때 朝講, 晝講, 夕講의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승정원에서 조강은 날이 밝을 때이고, 주강은 正午이며, 석강은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²⁵⁾ 그러나 광해군은 이튿날 날씨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연을 다음 날로 미루면서 홍문관에서 경연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규정을 정하도록 한 광해군은 기다리지 못하고 당일에 본인이 독서할 책과 방법, 시간을 정하여 홍문관에 전하도록 하였다. 즉, 『書傳』은 大文과音を 한 차례씩, 해석은 두 번하고, 『大學衍義』는 大文과 註의 음과 해석을 한 번씩 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설정하고 본인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또한 독서할 시간도 역대 제왕들은 묘시(5-7)에 실시하였는데 辰時(7-9)초로 늦추었다. 늦춘 이유를 보면, “내가 비록 병을 참고 건디며 경연을 열고자 하나 만약 이른 아침에 거동하면 더 아플까 염려되니 조강은 우선 辰時 초로 정하고 정상으로 회복된 뒤에 옛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라.”²⁶⁾ 이 글을 보면 마치못해 경연을 열어 독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다음 날인 3월 26일에 처음으로 경연을 열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書傳』 <無逸篇>을 읽었으며, 南以恭(1565-1640), 李恒福(1556-1618), 李廷龜(1564-1635), 洪命元(1573-1623) 등이 참석하였다.²⁷⁾ <無逸篇>은 『書經』 卷第8 周書에 나온 편명으로 周公이 은나라 中宗, 高宗, 祖甲이 정사에 부지런 했던 것처럼 편안히 놀기만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등이 즐겨 읽었던 내용인데, 광해군 역시 역대 왕들이 즐겨 읽었던 부분부터 선택하여 읽은 것으로 보인다. 책의 선택은 왕 자신의 선택권보다는 왕과 경연관들이 상의한 후 선택해서 정해진다. 광해군의 경우 조강에 『書經』, 주강과 석강에 『大學衍義』를 선정하였다. 두 책을

2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3月 16日(壬辰) 卷26. 冊31. 509.

25)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3月 24日(庚子) 卷26. 冊31. 515.

26)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3月 25日(辛丑) 卷26. 冊31. 515.

27)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3月 26日(壬寅) 卷26. 冊31. 515.

읽으면서 윤3월 2일에는 특진관 吳億齡, 참찬관 이수광에 의해 주강과 석강에 『心經』과 『近思錄』을 추천하였다.²⁸⁾ 그러나 윤3월 4일에 승정원의 관리들과 논의 중 『心經』과 『近思錄』독서는 왕이 알아서 하겠다하여 독서자료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2년 3월 26일 경연을 시작하여, 윤3월 2일, 4일, 5일, 8일, 10일, 16, 19, 21, 22일 등 간간히 조강에 참여하였다. 윤3월 5일 조강에서는 『家禮諺解』를 간행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윤3월 10일 조강에서는 왕세자에게 史略으로 독서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4월, 5월, 6월, 7월, 8, 9월까지(7월 25일을 제외) 거의 조강을 실시하지 못했다. 10월 29일 오랜만에 경연을 열어 독서하였는데 당시 참여한 인물은 영사인 우의정, 지사 趙挺, 특진관 尹洞, 金信元, 옥당 丁好善, 金壽賢, 승지 李馨郁, 주서 韓汝稷, 사관 韓仁及), 李潤雨, 헌부 대사헌, 간원 대사간 등이었다. 11월의 경연은 11월 6일, 7일, 8일, 9일, 16일, 17일, 18일, 21일, 25일, 26일에 실시되었으며, 책은 『尙書』를 읽었다.²⁹⁾ 이 중 11월 7일에는 경연에서 세자가 조강에 참여하는 일을 논의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모례(10일)가 潘城府院君 제사이므로 경연을 휴강하도록 하였다.³⁰⁾ 11월 18일에는 이덕형과 <蔡仲之命>을 읽었다. <蔡仲之命>은 『書經』 <周書> 권8의 6에 해당하는 편명이다(書經 卷8 周書6. 蔡仲之命). 당시 광해군이 蔡仲之命을 읽고 토론한 내용을 보면,

광해군: 三叔의 죄가 모두 宗社에 관계되었으니, 王法에 비추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周公과 같은 성인이 天倫의 변고를 당했으니 그야말로 천백세에 걸쳐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

李德馨: 주공이 직접 3숙의 변을 당했으면서도 蔡仲이 어질자 채 나라에 봉해 주었으니, 대성인이 처치하신 것이 하늘과 똑같이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金壽賢: 3숙에게 죄를 준 것도 公心이었고 채중을 봉해 준 것도 공심이었으니,

28)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윤3월 2日(丁未) 卷26. 冊31. 519.

29)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11월 6日(丁未) 卷35. 冊31. 575.

30) 潘城府院君은 선조의 첫 왕비 박씨의 아버지 朴應順(1526-1580)으로 『선조수정실록』에는 실제 세상을 떠난 날이 선조 13년(1580) 11월 1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광해군이 11월 10일 이 기일이라 하여 제사를 모시고 있다.

- 대 성인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후세에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 광해군: 주공이 3숙에게 죄를 준 것이 그야말로 中道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달리 처리할 수는 없었던가?
- 이덕형: 『朱子語類』를 보건대, 어떤 이가 묻기를 ‘주공이 관숙을 죽였는데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었는가?’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었으니 주공이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였습니니다. 이밖에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광해군: 그 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어린 아들까지 폐하지 않았으니, 지금이 공정한 주공의 뜻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 이덕형: 변을 당한 것은 불행이나 중도에 맞게 처치를 했으니, 주공이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을 더욱 알겠습니다.³¹⁾

이와 같이 3월 26일 書經 卷8 周書 <無逸篇>을 시작해서 11월 18일까지 <蔡仲之命>을 읽었으니 8개월간 독서량을 보면 <無逸>, <君奭>, <蔡仲之命> 총 3편을 읽었을 뿐이다.

2년 11월 21일에는 세자가 특명있는 날에만 조강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참석할 때는 반드시 책을 소지하도록 하고 절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절목을 보면,

“왕세자가 조강에 들어와 참석하는 날, 掖庭署가 왕세자의 좌석을 배치하는데, 그 위치는 왕의 자리 동남쪽 서쪽방향으로 領事의 북쪽으로 하며 바로 앞에 요를 깬다. 宦官이 시각에 맞춰 中門 밖에서 기다린다(伺候한다). 왕이 어좌에 오르면 세자가 翼善冠에 袞龍袍 차림으로 안에서 나와 계단 아래에서부터 동쪽계단(東階)으로 올라 온 뒤 俯伏하고 일어나 마련된 자리로 가서 앉는다. 영사 이하가 평상시처럼 입시한다. 강이 끝나면 영사 이하가 순서대로 먼저 나가고, 세자도 나가 동계 아래에서 조금 물러서 있다. 전하가 안으로 돌아가면 세자도 안으로 돌아간다. 궁관이 물러간다.”³²⁾

그러나 그 후 조강하는 날이 12월 1일, 12월 5일 뿐으로 세자가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듬해인 광해군 3년(1611)에는 조강, 주장, 석강이 거의 없었다. 조강을 한 날은 9월 30일, 10월 1일로 당시 참여한 인물은 領事 우의정 李恒福, 知事 申欽, 특진관 朴東亮, 李慶涵, 옥당 陸大欽, 權昕, 사헌부 대사헌 柳希奮, 사간원

31)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11月 18日(己未) 卷35. 冊31. 579.

32)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11月 21日(壬戌) 卷35. 冊31. 583. 2年 11月 25日(丙寅) 卷35. 冊31. 585.

사간 李惺, 승지 李德洞, 假注書 尹燦, 사관 李敬輿, 검춘추 林健 등이었다.³³⁾ 10월 14일에는 辰時 초에 시독관 陸大欽 등과 『상서』 <多方>편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 후 進豊토을 마친 후에 경연을 열겠다는 통보를 보낸 뒤 거의 경연에서 독서하고 광해군 3년을 마무리하였다.

광해군 4년(1612) 해가 바뀌어도 독서할 생각이 없었다. 승정원 및 사간원에서 경연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병에 걸려 추위가 두려워서 경연을 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상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가까운 날에 조리하고 나서 하겠다.”³⁴⁾라는 말 뿐이었다. 7월이 다 되도록 열지 못하자 7월 19일 사간원에서 건의했으나 옥사가 끝난 후 시행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당시 옥사란 ‘김직제의 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8월 8일 다시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건의하자 “경연을 여는 일은, 옥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 기운이 평온치 않으니, 마땅히 조리고서 하겠다.”³⁵⁾ 하였다. 9월 10일에 정업은 광해군에게 즉위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경연이 드물었고, 역적을 국문하는 일로 정지한지가 1년이 다 되었으며, 날씨도 서늘해 졌으므로 경연을 열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 광해군은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이었다.³⁶⁾ 9월 12일에는 閔德男에게 조강만 하겠다고 했으나 다음 날 13일에는 주강만 하였다. 그 이유는 옥사로 인한 책임으로 대사헌 李爾瞻(1560-1623), 집의 崔東式(1562-1614), 장령 李士慶(1569-1621), 金壽賢(1565-1653), 지평 李溟(1570-1648), 南以俊(1566-?) 등이 사직을 청한 일로 주강만 열었다. 9월 18일에는 視事廳에서 영사 李恒福, 특진관 金信元, 동지사 趙挺, 특진관 柳公亮, 참찬관 李好信, 집의 申景洛, 사간 尹重三, 시강관 柳瀟, 검토회 曹明勗, 기사관 閔應恢, 李敬輿, 權倜 등이 참여하여 『尙書』 <大誥>편을 강독하였다. 당시 토론 내용을 보면,

“유 숙: 문왕과 무왕은 그 백성들을 잘 받들고 덕을 행할 만하였으니 참으로

33)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3年 10月 1日(丁卯) 卷45. 冊31. 652.

3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月 21日(丙辰) 卷49. 冊32. 5.

35)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8月 8日(己巳) 卷56. 冊32. 91.

36)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9月 10日(辛丑) 卷57. 冊32. 101.

귀신과 하늘의 주인이 될 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문왕과 무왕을 가르치시어 아름답게 간택하신 다음 온 나라의 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어 만국을 바로잡게 한 것입니다.

광해군: ‘靈承于旅’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 숙: 靈은善이고 旅는衆이니 ‘백성들을 잘 받든다.’는 뜻입니다. ‘式教用休’는 문왕과 무왕이 이미 하늘에게 인정을 받아 그 덕이 날로 새로워져 좌우로 도의 근원을 찾아냄에 그 생각이 일으켜주는 것 같고 그 행동이 도와주는 것 같았으니, 이는 바로 하늘이 가르치시어 성대하고도 아름답게 한 것이지 꼭진하게 타이르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章은 ‘하늘이 이미 주나라에게 天命을 주어 하나로 정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오히려 조용히 있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를 두렵게 만들어 복종시킴이 이보다 더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복: 이른바 ‘영승우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방언입니다. 문리로서 말을 한다면 오히려 『대학』에서 이른바 ‘明明德’이며, 『중용』에서 이른바 ‘篤恭而天下平’입니다. 임금의 덕은 오로지 공과 私의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사사로움에 구애되어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비록 덕스럽게 되려고 하더라도 능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치란과 홍망의 기미는 터럭만큼의 사이도 용납치 않는 것으로, 이른바 ‘克勸用德’ 네 글자는 성학 공부에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광해군: 온나라 백성들은 참으로 죄줄 만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 집터를 파내고 전지를 풀수할 수야 있겠는가.

이항복: 온나라 백성들은 先王의 은택을 생각하여 비록 紂처럼 포악한 임금이 다스려어도 사람들이 모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므로 周公이 이들에 대해서 꼭진하게 타이르면서 효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대개 위협에 못이겨 따른 사람들은 치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찌 사람마다 모두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 숙: 대개 이 편은 역적을 토죄하는 의리가 많이 있으니 상께서 유념하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의 목숨을 다 주별할 수는 없으나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주살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항복: 이것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지 紂王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 위협에 못이겨 따른 무리들은 주나라의 지극한 덕을 모르고 三監을 따라 난을 일으킨 것이므로 반복해서 타이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³⁷⁾

37)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9月 18日(己酉) 卷57. 冊32. 105.

“柳瀟曰: 文王、武王善承其衆, 克堪用德, 是誠可以爲神天之主矣. 故天式教文、武, 用以

9월 29일 시사청에서 조강, 주강을 실시하고 4년을 마무리 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독서는 중단 되었다. 광해군 5년(1613) 1월 13일 홍문관에서 경연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 후 하겠다는 답만 하였다. 당시 사신은 광해군에게 다음과 같은 평을 내렸다.

“왕이 女色과 놀기를 좋아하여 매양 궁녀 서너 명을 데리고 후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다가 꽃 나무와 수석 등이 있는 곳에서는 매번 술을 들이게 하고 음악을 연주케 하면서 밤낮이 다하도록 지칠 줄 몰랐다. 궁인들은 진미와 기이한 노리개를 다투어 만들어 총애와 칭찬을 구하니, 신료들 보기를 더욱 싫어하였다. 이이첨이 커다란 옥사를 연이어 일으킨 뒤로는, 외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다시는 순행을 하지 않았다. 대역 죄수를 국문하는 것이 아니면 정전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례를 받는 大禮가 아니면 국문을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왕의 치세가 끝날 때까지 신하들을 인견한 것이 8, 9번도 되지 않고 경연을 연 것이 겨우 5, 6번이었다. 이 이후로는 관각의 신하들이 모두 뒷사람의 뜻에 영합하는 간혹한 사람들이어서 또한 경연을 열자고 다시는 청하지 않았다.”³⁸⁾

1월 24일에 영의정 이덕형 등과 조강을 열어 독서하였는데, 며칠 후 28일에는 상삼후에 경연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 것으로 보면 독서하기는

休美簡擇，畏/畏付殷命，以正多方也。王曰：‘靈承于旅’者，何意耶？柳瀟曰：靈，善也；旅，衆也，謂善承民衆也。‘式教用休’，言文、武既得乎天，其德日新，左右逢源，其思也若起之，其行也若翼之，此乃天之所以式教而用昌大休明者也，非諄諄然而教之也。此章言‘天既命我周而定于一矣。爾猶洵洵不靖，欲何爲耶？’明指天命，譬服奸雄之心者，無切於是矣。李恒福曰：所謂‘靈承于旅’者，其時方言也。若以文理言之，則猶《大學》所謂‘明明德’、《中庸》所謂‘篤恭而天下平’也。人主爲德，只在公私之間。苟拘於私，公道不行，雖欲爲德，亦不克堪。治亂、興亡之機，間不容髮，所謂‘克堪用德’四字，最切於聖學工夫也。王曰：殷民固可罪之。然人人皆可濫宅收田耶？李恒福曰：殷民思先王之惠澤，雖以紂之暴虐，人無叛意。故周公於此，諄諄曉諭。蓋脅從罔治之意也，豈可人人而罪之哉？柳瀟曰：‘大概此篇多有討逆之義，自上體念至當。四國民命，雖不得盡誅，其爲首者則不可不誅之矣。’李恒福曰：此則指民衆，而言非指紂而言也。故其辭如此。大抵其時，脅從之類，不知周之至德，從三監而作亂。故反復教諭，以鎮人心也。”

38) 『朝鮮王朝實錄』光海君 5年 1月 13日(辛未) 卷62. 冊32. 151.

“王好與女色娛戲，每引寵姬數人，步遊後苑。遇花樹水石，輒進酒，奏絲竹，窮日夜不倦。宮人爭爲珍味奇玩，以沽寵賞，尤厭見臣僚。自李爾瞻連起大獄，深懼外人圖己，不復巡幸。非鞠逆囚，不御殿，非受賀大禮，不出宮門。是以終王之世，引見臣下，不能八九番，開經筵，僅五六番。自此以後，館臣皆姦兇希旨之人，亦不復以經筵爲請矣。”

정말 싫은 모양이었다.

독서하기 싫은 광해군에게는 경연이 큰 의미가 없었다. 경연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주관하는 기관인 홍문관도 부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홍문관의 인원도 불충분하여 교대하고자 해도 교대할 사람이 없었다. 5년 8월 21일 사간원에서는 ‘교대하는 인원도 꺾이고 있고, 논의하려 해도 참석인원이 3명도 안되므로 인원을 새로 선발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³⁹⁾ 비록 광해군이 충원하도록 승낙은 했으나 그 해 경연은 실시되지 못했다.

광해군 6년(1614) 7월 20일에 한 번 경연에 나간 일이 있으며, 광해군 7년(1615)에도 경연에서 독서하는 날이 거의 없었다. 보다 못한 사간원, 사헌부가 나서서 경연을 열어 독서할 것을 건의했으나 역시 신병관계로 독서를 회피하였다. 당시 사관이 비평하기를,

“왕이 즉위한 후로 경연을 연 적이 없었고 자꾸 병 때문이라 하였지만 죄인을 친국할 때에는 혹 밤늦도록까지 하였으니, 어찌 사람 죽이는 일은 급히 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등한히 한단 말인가. 옥체가 평안해졌다고 아뢰었는데도 오히려 조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니, 평안한 옥체를 조리한다면 어느 때에 학문을 강론할 수 있겠는가.”⁴⁰⁾

광해군은 신경희 등의 사건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좌불안석인데 책이 눈에 들어올 까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계속적인 경연을 재개하여 책을 가까이 하고, 그 책으로 인해 신하들과 토론을 통해 정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등의 권고를 했으나 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1월 19일에는 좌의정 정인홍이 나이가 많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강의 시간을 巳時 정각으로 미루도록 해서⁴¹⁾ 비로소 경연에서 독서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광해군을 지지해준 정인홍이 하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까운 시일에 경연을

39)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8月 21日(丙午) 卷69. 冊32. 241.

40)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7年 4月 2日(戊寅) 卷89. 冊32. 373. 위의 내용에서 사람 죽이는 일이란 신경희 등이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사건(신경희의 옥사)을 말함.

41)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7年 11月 19日(辛卯) 卷97. 冊32. 438.

열겠으니 내려가지 말고 따뜻해지면 내려갈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면⁴²⁾ 광해군이 경연을 구실로 정인홍을 잠시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그 이후 정인홍과 경연에서 독서했다는 근거가 없다. 문신들의 경연에 대한 건의는 계속되었다. 광해군 8년(1616) 1월 16일에 홍문관에서, 2월 26일에는 사간원, 4월 9일에는 사헌부, 10월 17일에는 승정원 등에서 건의한바 옥사가 마무리되면 시작하겠다는 답변이었다.⁴³⁾ 결국 광해군 8년에도 경연을 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듬해인 광해군 9년(1617) 옥사가 마무리 되었어도 경연을 열지 않자 1월 21일 사간원, 사헌부에서 잇달아 건의하였으나 답변은 “내가 현재 병중에 있으니 조리하고서 하겠다.”라는 답변뿐이었다.⁴⁴⁾

광해군이 완쾌되어도 독서할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2월 22일에 南瑾, 金質幹 등이 경연에서 독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어도 광해군은 무반응이었다.⁴⁵⁾ 이와 같이 경연에서의 독서가 거의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문신들의 태도도 말이 아니었다. 특히 경연을 담당할 홍문관의 관리부터 근무태도가 부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옷차림도 엉망이고, 걸근은 밥 먹듯이 하였으며, 숙직차례가 되어도 결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연을 위해 예습, 복습은 있을 수가 없는 한가한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 예로 10월 2일 홍문관 부교리 정준이 숙직을 빠뜨린 일과 홍문관의 태도에 대해 당시의 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홍문관 부교리 鄭遵을, 숙직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았다. 왕이 재위한 지 10여 년 동안 경연을 연 것이 겨우 며칠뿐이었으므로 옥당은 한가한 곳이 되어 버렸다. 정사가 문란해진 이후로 이 벼슬에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뢰배였다. 평상시 입는 옷차림으로 드나드는 것을 마치 개인집과 같이 하였으며, 숙직을 빠뜨리는 자들도 빈번하였다.”⁴⁶⁾

42)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7年 11月 22日(甲午) 卷97. 冊32. 439 ; 7年 11月 23日(乙未) 卷97. 冊32. 439.

43)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8年 10月 17日(甲寅) 卷108. 冊32. 524.

4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9年 1月 21日(丁亥) 卷111. 冊32. 556.

45)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9年 2月 22日(丁巳) 卷112. 冊32. 569.

46)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9年 10月 2日(癸巳) 卷120. 冊32. 622.

이와 같이 홍문관은 부실한 관청이 되었으며, 문신들 역시 놀고먹는 관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연에서의 독서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다. 광해군 10년(1618), 11년(1619)에도 경연은 없었으며, 12년(1620) 역시 침을 맞는다는 이유로 신료들을 접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12년 9월 26일). 그 후에도 경연에서의 독서는 없었다. 결국 광해군은 광해군 15년(1623) 3월 12일 밤 인조반정으로 인해 집권 16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 제주도로 유배되어 살다가 1641년 67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그의 재위 시절 16년 동안 독서횟수와 읽었던 책을 보면, <表 2>에서 보듯이 총 41회로 나타났다. 1년까지는 한 번도 실시되지 못했으며, 2년에는 28회, 3년에 7회, 4년에 윤달까지 포함해서 6회, 5년, 6년에 각각 1회 정도였다. 광해군 14년 6월 25일 경연을 중지했다는 내용을 보면 6월 25일 이전에는 조강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기록이 없다. 재위 기간 중 가장 많이 읽은 해가 광해군 2년으로 그 해 윤3월에 9회, 11월에 13회로 나타났다. 그래도 계절별로 봤을 때 봄과 겨울에 책을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독서력 저하를 가져왔다. 실록에도 16년을 집권하면서 경연을 열어 독서한 것이 10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는 좀처럼 독서에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47)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卽位年 7月 1日(乙酉) 卷6. 冊31. 323.

<表 2> 光海君의 經筵에서의 讀書回數

年度 \ 月	1	2	3	윤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1	9	4	0	0	1	0	1	0	10	2	28	28
3	0	0	0		0	0	0	0	0	1	5	1		7	35
4	?	?	0		0	0	0	0	0	2(2)	1	0윤2	0	4(2)	39(2)
5	1	0	0		0	0	0	0	0	0	0	0	0	1	40
6	0	0	0		0	0	0	1	0	0	0	0	0	1	41
7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8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9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總回數	1?	0?	1	9	4	0	0	2	0	4(2)	6	13	2	41	41

*()는 주강회수

광해군에게 추천된 책은 『大學衍義』와 『書經』, 『心經』, 『近思錄』 등이었다. 이 중 『大學衍義』는 읽다가 중단했으며, 『心經』과 『近思錄』은 읽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읽었던 책은 『書經』한 책뿐으로 그것도 완독하지 못하였다. 광해군이 세자 책봉 후부터 왕권을 행사할 때까지 읽었던 책은 세자 시절에 읽었던 『孟子』와 광해군 4년에 읽고 토론했던 『書經』 <大誥>편이 마지막이었다.

한 때나마 그와 같이 경연 독서 참여한 인물은 南以恭(1565-1640), 李恒福(1556-1618), 李廷龜(1564-1635), 洪命元(1573-1623), 趙挺(1551-1629), 尹洞(1549-1614), 金信元, 丁好善(1571-1633), 金壽賢(1565-1653), 李馨郁(1551-1630), 韓汝稷, 韓仁及(1583-1644), 李潤雨(1569-1634), 李德洞(1566-1645), 申欽(1566-1628), 朴東亮(1569-1635), 李慶涵(1553-1627), 睦大欽(1575-1638),

權昕, 柳希奮(1564-1623), 李愷(1562-1624), 尹燦(1575-?), 李敬輿(1585-1657), 林健(?), 柳公亮(1560-1624), 李好信(1563-?), 申景洛(1556-1615), 尹重三(1563-1619), 柳瀟(1564-1636), 曹明勗(1572-1637), 閔應恢(1582-1653), 權倜(1589-1615) 등이었다.

광해군이 왕권 16년 동안 독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독서습관 부재와 심리적인 불안감 등이라 할 수 있다. 한 참 독서에 치중해야할 나이에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 국가는 피폐해지고, 그 해 형 임해군을 제치고 세자에 책봉되었지만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1606년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출산하자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뉘어 적자 왕위계승문제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즉 세자시절에 가장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시기에 독서할 마음과 기회가 없어 습관화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608년(34세) 왕권을 잡은 후에는 <表 3>과 같은 일련의 국내사건과 신병상의 이유로 더욱 독서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表 3> 讀書沮害要因

連番	讀書沮害要因
1	壬辰倭亂으로 책을 소유하기 어렵고, 많은 책이 소실됨
2	壬辰倭亂으로 인한 후유증
3	형인 임해군을 제치고 왕권을 잡자, 중국과 일부신하들의 반발에 심적인 부담감
4	宣祖의 사망
5	1608년 임해군 축출
6	1611년 성균관 유생 축출사건
7	1612년 김직재의 옥(소북파 대숙청)
8	1613년 문경세재 살인사건, 칠서의 옥(인목대비 부친 김제남 사사),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의 축출(계축옥사)
9	1615년 신경희 사건(능창군 추대사건)
10	1618년 인목대비 서궁유폐 사건
11	신병상의 이유
12	酒色과 놀기를 좋아함
13	심적인 불안감으로 외출과 문신들 만나길 두려워함
14	날씨 환경
15	祭祀

이처럼 광해군은 국내외문제 및 개인의 신상으로 인해 독서를 멀리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모든 문신들의 건의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책을 멀리한 것으로 보면 독서흥미는 물론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言

이상은 조선조 제15대 왕인 광해군을 대상으로 그가 16년 동안 왕권을 행사하면서 경연에서 독서한 행태를 시기별로 조사하여 그의 독서력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자시절의 독서는 임진왜란으로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시강원을 설치하여 서연관 右副賓客 奇自獻, 彌善 文勵, 司書 李民庇 등과 『孟子』를 읽고 토론한 바 있다.

2) 경연제도에 있어서 초기 경연청은 시강원, 안정된 후에는 시사청, 문정전 등을 이용하였으며, 경연은 조강·주강·석강의 3강으로 정하여 儒臣이 진강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시간은 조강은 원래 묘시(5-7)였는데 辰時로 늦추고, 주강은 午時, 석강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참여 관직과 인원은 조강에 영사·지사 각 1명, 홍문관 상·하번과 승지·주서 각 1명, 사관 2명, 특진관 2명, 양사 각 1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강·석강에는 홍문관 상·하번과 승지·주서 각 1명, 사관 2명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3) 광해군의 독서행태를 보면 대군시절 독서는 『小學』부터 기초적인 책을 선택하였으며, 세자시절에는 규칙에 얽매인 독서보다는 자유스럽게 하는 자유독서를 주장하였다. 결국 시강원에서는 서연을 자유독서에 맞추어 독서가 진행되었으나 왕권을 행사하면서는 경연의 독서가 서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문신들을 자주 만나 책을 읽고 토론은 물론 정사를 논하는 자리이므로 매사 부담스러워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들로 인해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꾸 신병을 빙자하여 독서하기를 꺼려했다.

4) 광해군 16년 동안 총 독서횟수는 41회로 나타났다. 1년까지는 한 번도 실시되지 못했으며, 2년에는 28회, 3년에 7회, 4년에 윤달까지 포함해서 6회, 5년, 6년에 각각 1회 정도였다.

5) 광해군에게 추천된 책은 『大學衍義』와 『書經』, 『心經』, 『近思錄』으로 이중 『大學衍義』 주장과 석강과목인데 읽다가 중단했으며, 『心經』과 『近思錄』은 독서를 거부하였다. 단지 그가 읽었던 책은 朝講 과목으로 『書經』한 책뿐인데 그것도 완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광해군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독서력은 저조했으나 왕위에 오른 뒤에도 대군시절 독서지도를 담당한 사부 河洛, 朴光前, 閔應祺, 鄭雲龍, 權宇 등에게 명절 때나 후손들에게 직책을 주는 등 보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면 스승의 은혜를 오래도록 잊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대신함〉

